



보도시점 2024. 4. 22.(월) 배포 시 배포 2024. 4. 22.(월)

시설농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 보도 주요 내용 >

4월 22일(월)자 농민신문 「물 찾아 매년 관정 더 깊게…속타는 농심」 기사에서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ha(50백만원/ha)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 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및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 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계	충남 청양	충남 부여	경북 영양
'23년	3	3(기본조사)	-	-
'24년	9	3(세부설계·착공)	3(기본조사)	3(기본조사)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ha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서기관	강대일 (044-201-1863)

